

1% 부자들에게는 단지 'FTA괴담'? 에라이 썩을 놈들~

우리아이 우리 농산물 못 먹일 수도

지자체가 조례를 통해 우리 농산물 사용 급식에 경비를 지원할 경우, 미국은 맺은 협약을 근거로 미국 농축수산물을 차별했다며 한국 정부를 ISD 중재절차에 회부할 수 있습니다. 그러면 우리아이 우리 농산물 먹이기는 무산될 수도 있습니다.

약값 비싸 아파도 치료 못 받을 수도

미국의 신약 개발업체가 마음만 먹으면 복제약 개발업체 허가절차를 중지시킬 수 있습니다. 미국

제약회사는 우리나라에서 독점사업 하게 되고 의약품 값 치솟게 됩니다. 우리 '건강보험당연지정제' 나 '국민의료보험제도' 도 미국 제약회사에 투자한 투자자가 국자소송(ISD)을 넣으면 전부 무력화됩니다.



미국법이 한국법보다 우선하게 됩니다

법 적용 순서가 '미국법 → 한미FTA협정 → 한국법' 순이 됩니다. 한미FTA를 타고 들어오는 미국자본에 대해 한국이 어떤 통제도 할 수 없습니다. 분명 식민지협정입니다. 한미FTA는 노동자 민중에게 고통을 가중시키는 독소조항 투성이입니다. 미국이 지금까지 다른 나라와 체결한 협정을 통틀어 가장 미국에 유리하게 체결됐습니다.

FTA체결 외국사례, 남의 일 아닙니다

- 멕시코** 노동자 4천6백만 명 중 사회보험 적용받는 이는 1천 3백만 명에 불과합니다. 파산한 농민들 국경 넘다 죽은 사람만 1천6백 명이 넘습니다. 유아사망이 증가하고 있습니다.
- 캐나다** 비정규직이 5%에서 12%로 늘었습니다. 실업자 고용보험 혜택비율이 87%에서 36%로 줄었습니다. 유독물 방출한 미국 자본에게 정부가 오히려 제소당했습니다.
- 볼리비아** 물값이 임금의 20%수준까지 올랐습니다. 돈이 없어 빗물 받아먹습니다.
- 칠레** 칠레 상위 17개 광업회사 중 16개가 미국 등에서 몰려온 회사입니다. 자본이 유출되고 있지만 정부는 제재를 못합니다. 이들은 비정규직만 고용합니다.